

## 다윗의역사에서볼수있는

### 영적인 원칙과 생명의 공과와 거룩한 경고

6/13 월요일

#### 아침의 누림

삼상 17:45-47

45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자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블레셋 족속 진영의 시체들을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온 땅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7 그리하여 이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분께서 너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

마 10:29-31

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30 아버지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그 수를 다 세어 놓으셨습니다.

31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시 31:14-15

14 그러나 오, 여호와님! 저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15 저의 때가 주님의 손에 있으니 저를 원수들의 손과 저를 뒤쫓아 오는 이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롬 8:28-29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빌 4:6-7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7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

사무엘기상 17 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골리앗을 이긴 일에서 시험받고 인정받았다.

다윗은 골리앗의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 ... 다윗은 골리앗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삼상 17:26 하). 그는 또한 그렇게 모욕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수치를 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26 상절). ... 다윗은 자신이 그곳에 간 이유(29 하절)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모욕하는 그 사람을 패배시키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2 장, 99, 101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사울의 동의를 얻었다(삼상 17:31-39). 처음에 사울은 다윗이 소년에 불과하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사였다고 말하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만류했다 (33 절).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골리앗의 손에서 자신을 구출하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다윗의 확신은 그가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그를 구출하신 것을 체험한 것에 근거했다. 다윗은 목자로서 체험했던 것을 통해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으므로, 사울에게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신 여호와 그분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저를 건져 내실 것입니다.”(삼상 17:37 상)라고 말했다. 사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에게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기를 바란다.”(37 하절)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그의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입혔지만, 다윗은 그것을 입어 보려고 시도하다가 벗었다(38-39 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삼상 17:40-48). 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개울에서 매끈한 돌 다섯 개를 집고서는 손에 무릿매를 들었다(40 절). 골리앗은 다윗을 어리다고 업신여겼으며, 그가 오는 것이 마치 개를 쫓아내려고 지팡이를 들고 오는 사람 같다고 여겼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으며, 다윗의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먹이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41-44 절).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자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블레셋 족속 진영의 시체들을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온 땅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분께서 너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45-47 절)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패배시켰다(삼상 17:49-54). 그는 돌 하나를 무릿매로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 넣어 그를 죽였고 골리앗 자신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었다(49-

51 상절)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추격하여 죽이고 그들의 진영을 약탈했다(51 하-53 절).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골리앗의 갑옷과 투구는 자신의 천막에 두었다(54 절).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었다.

사울은 손에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삼상 17:55-58).

사무엘기상 16 장과 17 장에서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의 모든 방면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결국, 교회생활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패배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며, 평안 가운데 있어야 한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2 장, 101-10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2-13 장

**6/14 화요일**

아침의 누림

**갈 5:17, 24**

17 왜냐하면 육체는 욕망을 일으켜 그 영을 거스르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24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

**갈 5:21**

21 시샘과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술잔치와 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미리 말해 두는데, 이런 것들을 일삼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롬 14:17**

17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롬 12:18-21**

18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19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겠다. 주의 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 오히려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21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엡 4:26**

26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 10:38-39**

38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39 자기 혼생명을 얻는 사람은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는 사람은 혼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울의 시종드는 사람으로 선택되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함께 두시어 가까이서 살고 일하게 하셨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미워했다. 사울과 다윗은 서로에게 시험이 되었다. ...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드러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시험받았다는 것은 다윗이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두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교회생활 안에 있는 성도들, 특히 장로들은 우리에게 시험과 십자가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에서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에게 십자가일 것이다. 이혼할 수도 없고 별거할 수도 없으므로,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유일한 길은 십자가로 가서 그곳에 머물며 십자가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특정한 야심을 끝내도록 하는 것이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2 장, 99 쪽)

오늘의 입을 말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모든 임무를 완수하였다(삼상 18:5 상).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지혜였다. 그는 젊었지만 매우 지혜롭게 처신 했다. ...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를 세워 군대들을 지휘하게 하였고, 온 백성뿐 아니라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5 하절). 사울이 다윗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든지 그것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총애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나서 돌아올 때, 여자들은 사울을 맞으러 이스라엘 모든 성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노래했다. “사울은 수천을 쳐 죽였지만 / 다윗은 수만을 쳐 죽였다네.”(삼상 18:7) 사울은 이 칭송을 듣고는 언짢아져서 “백성이 다윗의 공로는 수만이라고 하면서 나의 공로는 단지 수천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 다윗이 더 가질 것이 왕국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그날부터 다윗을 질시하였다 (8-9 절). 사울은 화가 나서 다윗을 시기했다.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는 많은 ‘사울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만 우리는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시기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회에서 교통하는데 아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하자. 그런 다음 다른 누군가가 교통할 때는 많은 아멘 소리가 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자신의 명예에 손상을 주지 않은 채 그를 죽일지 음모를 꾸몄다.

사울의 모든 박해를 거치는 내내 다윗은 자신을 위해 싸우거나 보복하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그가 한 유일한 일은 도망하는 것이었다.

사울의 박해 아래서 다윗이 겪은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공과를 배워야 한다. ... 그것은 교회생활 안에 육체에 속한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분노도, 속이는 것도, 음모나 책략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며(롬 14:17), 교회 안에는 신성한 권위와 함께 합당한 질서가 있어야 한다. ...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질서를 감히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음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반역과 다툼은 교회생활을 무효화한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질서에 따라 교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순히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

보복하고 되받아치는 것은 육체에 속한 일들이다. ...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육체는 배제되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왜냐하면 육체는 욕망을 일으켜 그 영을 거스르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24절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말한다. 21절은 육체의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우리가 육체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라면, 우리는 왕국과는 끝난 것이며 왕국 안에서 아무런 몫도 얻지 못할 것이다. 시기와 분노와 편 나누기와 분열과 같은 그러한 것들은

왕국 안에서 이질적인 항목들이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3 장, 106-107 쪽, 14 장, 113-11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4-17 장

6/15 수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24:4-6**

4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장차 너의 원수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를 처리하여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겹옷 자락을 몰래 잘랐다.  
5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겹옷 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곧바로 마음에 가책을 느꼈다.  
6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와 기름부음 받은 나의 주께 손을 대는 그러한 일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는 일이오. 그분은 여호와와 기름부음 받은 분이시오.”

---

**빌 3:10**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골 1:24**

24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고후 4:10-12**

10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 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행 13:22**

22 그를 물러나게 하신 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 대해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고, 단지 사울의 겹옷 자락만을 잘랐다. 그러나 이것에 관해서조차도 다윗은 마음에 가책을 느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삼상 24:4 하-7).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신성한 권위의 질서가 있다. 사울은 자칭 왕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께 임명받고 기름부음 받은 왕이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는 신성한 권위가 있었으며, 다윗은 이 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의 질서를 지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자신이 장래에 하나님의 선민의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초를 놓았다. 다윗이 사울을 반역하였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임명하신 왕을 반역한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4 장, 11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다윗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한 사람이었다. ... 다윗은 사울을 주로, 곧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이로 여겼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를 보여준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 위에 있는 기름부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권위로 세우셨을 때 그 위에 임한 기름부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손을 들어 그를

해치지 않고 다만 도망 다녔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에 의해 거절당했지만, 이것은 사울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었다. 다윗에 관해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복종했으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책임이었다.

한 아말렉 젊은이가 다윗 면전에 와서 그가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다윗은 여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다윗은 그 젊은이에게 “어찌하여 그대가 겁도 없이 손을 뻗어 여호와와 기름부음 받은 분을 죽였단 말이오?”(삼하 1:14)라고 말했다. (워치만 니 전집, 47 권, 권위와 순복(상), 4 장, 180-181 쪽)

비록 다윗이 매우 많은 박해를 겪고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결코 싸우거나 반응하거나 응대하지 않았다. 신약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그는 항상 십자가 아래 있었다. 그는 각종 상황 아래서 매일 십자가를 졌다. 그는 불평하거나 비판하거나 반대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다루심을 받기 위해 단지 십자가 아래 있었다.

빌립보서 3 장 10 절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시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이다.

다윗은 십자가의 공과를 배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누렸다. …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요나단과 미갈은 둘 다 다윗이 도망하도록 도왔다(삼상 20:1-42, 19:11-18). … 결국, 다윗은 사울 아래서 받는 시련들을 ‘졸업하였다’. …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윗은 십자가의 공과를 배웠고, 결국 그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얻은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5 장, 121-123 쪽)

다윗의 삶은 파쇄되는 삶이었다. 성경에는 ‘파쇄됨’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된 사람임을 볼 수 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으로 부터 압력을 받았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행 13:22).(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368 쪽)

성령의 징계의 목표는 우리를 파쇄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 속사람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주님에게서 극심한 다루심을 받아야 한다. 다루심을 받아 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 출구를 내드릴 수 없다.(워치만 니 전집, 57 권, 워치만 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 25 장, 35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57 권, 워치만 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 25 장;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7, 16, 19 장*

## 6/16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삼하 7:5, 11

5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11 내가 명령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들을 세운 때와 같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모든 원수에게서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더욱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선포하건대, 여호와가 너에게 집을 건축하여 줄 것이다.

#### 대하 3:1

1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야산에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며,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마련해 둔 곳이었다.

---

#### 삼하 7:1-4, 12-14

1 왕이 자신의 궁전에 거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셨을 때에,

2 왕이 신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지금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3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가셔서 마음에 품으신 것은 무엇이든 하십시오.”

4 그날 밤에 여호와와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다. 12 네 날이 차서 내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네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13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14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할 것이다.

---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을 기울였다. …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잊지 않았다. …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비교 삼하 7:2).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지만, 다윗이 그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그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 여호와가 너에게 집을 건축하여 줄 것이다. … 내가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일으킬 것인데, …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삼하 7:5, 11-13)라고 말씀하셨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재료를 준비했다.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마음은 필사적이었다.

비록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 재료를 준비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자와 부지와 재료들을 준비했다(삼하 8:11, 왕상 7:51, 대상 26:26-27). 다윗은 성전 건축의 완성을 위해 그의 사역을 완수했고 하나님과 동역했다. 사도행전 13 장 36 절은 “다윗은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자기의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었고”라고 말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54 년, 4 권, 레위기 부터 느헤미야기까지에 나오는 계시-생명의 노선을 봄, 영문판, 533-535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과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일지라도 사람이 개시하거나 시작한 것은 모두 종교적인 활동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것은 그분을 위한 봉사와 일로 여겨질 수 없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 자신이 개시하시고 시작하신 것만 그분을 섬기는 봉사와 일로 간주하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그 어떤 일도 사람에게 의해 결정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옳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성전을 건축할 것인지 아닌지는 다윗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은 여러분과 내가 시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단에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보다 다윗은 멈추었다.

멈추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을 멈춘 다윗의 행동은 위대한 것이다.

바버(M. E. Barber) 자매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체험에서 나온 좋은 말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즉시 멈추었다. 그가 멈춘 것은 그의 필요나 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성을 보여 준다.

한번 생각해 보라. 만일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멈출 수 있었겠는가?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오겠지만, “아무것도 하지마라. 서두르지 마라. 너의 계획을 바꾸어라.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올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 열정적인 많은 사람이 그러한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많은 일꾼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한다.

다윗이 멈춘 것은 이 우주에서 다음과 같은 이중 증거를 세웠다. 첫째로, 이 우주에서 모든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시느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만 우리의 협력임을 깊은 속에서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의견과 결정과 구상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해야 한다. 우리는 다만 그분께 협력해 드려야 한다.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16 장, 286, 292-29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2-23 장; 진리 공과, 1 단계, 1 권, 11 과; 위트니스 리 전집, 1954 년, 4 권, 레위기부터 느헤미야기까지에 나오는 계시-생명의 노선을 봄, 영문판, 9 장, 529-535 쪽

6/17 금요일

### 아침의 누림

#### 삼하 12:10

10 그러니 이제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멸시하여 헛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 고전 10:11

11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

#### 삼하 12:9, 14

9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가 보기에 악한 일을 저질러 여호와의 말을 멸시하였느냐? 너는 헛 사람 우리야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하였다.

14 그렇지만 왕께서 이 일로 여호와와 원수들에게 그분을 모독할 큰 빌미를 주셨으므로, 왕에게서 태어난 아들 또한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 벤전 4:1-2

1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으로 자신을 무장하십시오(왜냐하면 육체에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2 그것은 여러분이 육체 안에 살아갈 남은 시간을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 51:1-2, 4, 10, 17

1 오, 하나님! 주님의 자애에 따라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잘못을 지워 주십시오.

2 저의 죄악에서 저를 철저히 씻겨 주시고 저의 죄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4 저는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의로우시며 판단하실 때 주님은 정당하십니다.

10 오, 하나님! 제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제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17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 제물은 상한 영입니다. 오,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하나님은 자애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시고 두려우신 분이시 다. ...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삼하 12:13), 다른 한 면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적인 의에 따라 다윗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셨다(삼하 12:10-14).(삼하 12:10 각주 1)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첫 아이는 죽었다(삼하 12:18).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로, 또 다른 아이가 그녀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이름은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이'를 뜻하는 '여디디야'였다 (25 절). 다윗은 그 아이에게 '평화로운'을 뜻하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었다(24 절). ... 그러나 그때로부터 다윗의 집안이나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는 전혀 평화가 없었다. 솔로몬의 왕권은 놀라운 시작을 가졌지만, 그의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이 동일하게 그에게도 일어났으며, 그의 종말은 가련했다. ...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시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4 장, 253-254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모두 굴복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높아졌을 때, 평화로운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다. 이것은 우리가 평화로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유혹을 받아 육체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윗의 죄는 눈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에 빠진 결과였다(삼하 11:2 하-3). ... 다윗은 왕권이라는 자신의 권세를 남용하여(4-5 절) 겁탈을 하면서까지 고의로 간음을 저질렀다. 이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모욕이었다. 이러한 큰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과거에 이룬 모든 업적이 거의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 다윗은 요압과 공모하여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 우리야를 살해하였다(삼하 11:14-25).

우리야는 다만 칼에 의해 죽음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의 아내를 취하려는 다윗에게 살해 당했다. ... 다윗은 또한 의도적으로 간음을 범했다. 다윗은 이 한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십계명의 후반부 다섯 계명을 범하였다(출 20:13-17).

다윗은 모든 면에서 완전했지만, 육체의 정욕에 빠지는 문제에서는 약했다. 육체의 정욕은 야생마 와 같다. 이 정욕을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고삐를 아주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 느슨하였으며, 그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쌓은 최고의 업적을 허물어뜨렸다. 다윗은 하나의 커다란 '다이아몬드'였지만, 그가 정욕에 빠진 것은 이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검은 이물질이었다. 비록 그는 영적인 추구에서 최고의 업적을 이룬 사람 이었지만, 여전히 그러한 큰 죄를 범할 수 있었다.

사무엘기는 또한 사람의 실패를 보여 준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은 육체의 정욕의 문제에서 실패했다. 다윗의 결함은 그가 자신의 육체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왕의 직분의 시대를 시작하실 길을 마련해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그분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악한 자가 유혹하는 결정적인 때에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강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정욕에 빠져 극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엄청난 죄를 범했다. 이것은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인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3 장, 245-247 쪽, 34 장, 252 쪽, 38 장, 287 쪽)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열두 지파 가운데 열한 지파를 잃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입지와 위치도 잃었다 (삼하 20:1-2). 다윗의 죄는 솔로몬의 부패를 낳는 씨가 되었으며(참조 삼하 12:24 각주 1), 솔로몬의 부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왕국은 분열되었다 (왕상 11:9-13, 12:1-17). 또한 왕의 직분을 이어받은 솔로몬의 후손 안에 뿌려진 이 부패의 씨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잃고 조상의 거룩한 땅을 잃어버렸으며, 거룩한 백성은 포로가 되었고, 온 땅에 이리저리 흩어져서 지금까지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다.(삼하 12:10 각주 1)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3-34, 38 장

6/18 토요일

아침의 누림**왕상 11:13**

13 나는 너에게서 왕국 전체를 찢어 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너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줄 것이다.”

**벤전 3:8-9**

8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며, 생각을 낮추고,  
9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렇게 함으로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

**벤전 3:10**

10 왜냐하면 성경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갈망하는 이는 그 혀로 악한 말 하는 것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하여라.

**갈 6:7-10**

7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씨를 뿌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겠지만,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영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9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때에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게 그렇게 합시다.

**눅 6:36-38**

36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37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결코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유죄판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결코 유죄판결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38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줄 것인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의 품에 안겨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되어 주는 그 되로 여러분도 되어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다윗의 죄가 몹시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무거운 벌을 내리셨다. 다윗의 실패 이후에 그의 집안에는 근친상간, 살인, 반역 등과 같은 많은 악한 일이 발생하였다(삼하 13 장, 15:1-19:8 상). 다윗의 집안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악한 일의 근원은 다윗이 육체의 정욕에 빠진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그분의 징벌과 통치적인 다루심이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준다.(삼하 12:10 각주 1)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은 다윗이 시편 51 편에서처럼 하나님께 자백한 후에 즉시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그가 죽은 후에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의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도 그를 떠나지 않는다.(워치만 니 전집, 50 권,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하), 40 장, 15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열왕기상·하에 묘사된 그림은 ...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하고자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에 참여하는 것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 그림은 모든 왕이 왕의 직분이라는 복된 상황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고 그들의 유업을 돌아보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닥친 하나의 비극으로 마무리된다. 결국 그들은 좋은 땅을 잃고 포로가 되어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때 엄중한 경종과 경고가 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앞서 언급한 어떤 문제들에서 잘못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손실을 당할 것이다.(왕상 1:1 각주 1)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고 생활하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또한 그들의 누림을 위한 것이다. 좋은 땅이 더러워지고 거룩하지 않게 된 백성을 토해 내는 것(레 18:25, 28, 20:22)은 우리의 거처이시자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합당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를 그분 밖으로 토해 내시고 더 이상 우리가 그분을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비교 계 3:16)(레 18:25 각주 2)

다윗의 일생은 밝은 해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좋게 시작되었고, 그의 생애와 업적은 정오에 빛나는 해와 같았다. 그러나 그가 정욕에 빠진 것(삼하 11 장)은 그의 업적에 오점이 되었으며 그의 찬란했던 삶을 저녁에 지는 해처럼 쇠잔해지게 했다. 다윗의 말년에는 찬란하거나 뛰어나거나 훌륭한 것이 전혀 없었다.(왕상 1:1 각주 3)

마태복음 6 장 15 절과 18 장 23 절부터 35 절까지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유죄판결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일이다! ... 그러므로 용서하는 일에서 관대하기를 배워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결단코 함부로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부주의하게 평가하는 것이 자주 우리 자신에 대한 심판이 된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더 관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관대하실 것이다. ...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인색하고 엄격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시고 엄격하실 것이다. 우리는 온유하고 자비로우며 관대하게 형제를 대하기를 배워야 한다. 많은 일들에 있어서 많은 험담을 하지 말고 비난하지도 말며, 그런 것은 다른 이들이 하게 두라. ... 다른 사람들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때이지 그들을 비난할 때가 아니다.

오늘날 많은 형제들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들이 과거에 너무 심하게 다른 이들을 비난한 것이다. ...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적인 손이 우리 위에 임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 관대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관대하게 대하기를 배워야 한다. (워치만 니 전집, 50 권,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하), 40 장, 159-162 쪽)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부름 받았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복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항상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복을 우리 자신도 상속받게 될 것이다(마 10:13). (벤전 3:9 각주 2)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50 권,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하), 40-42 장

**2022. 6. 13 ~ 2022. 6. 16**

단체로 읽을 말씀: “교회의 정통”, 8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2-15, 22-23, 34 장

워치만 니 전집, 57 권, 워치만 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 25 장;

**6/19 주일**

아침의 누림

**삼상 2:35**

35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따라 행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안전한 집을 지어 줄 것이고, 그는 줄곧 나의 기름부음 받은 이 앞에서 행할 것이다.

**삼상 13:14**

14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분 자신을 위하여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고, 여호와와 그 사람을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행 13:22**

22 그를 물러나게 하신 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 대해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잠 4:18**

18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

**히 10:36**

36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약속하신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 12:1-2**

1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구름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얹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유 2, 21, 24**

2 긍휼과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24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그분의 영광 앞에 흠 없는 사람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서게 하실 수 있으신 분,

**545. 삼일 하나님 영광의 영**

1 삼일- 하나님의- 그 영 지금- 우리- 영에- 거해 하나-님 표현하-려고 우리- 속에서 흘러나.

2 바깥-의 타고난- 사람 늘 그-영 속-박하-였네 주 거-쳐 정하지- 못해 오히-려 갇히셨다네.

3 질그-릇 속 보배-처럼 주 감-취어-져 안- 보여 질그-릇 파쇄되-야만 보배-가 나타나겠네.

4 혼 생-명이 속박-하니 자아-는 혈-려야- 하네 타고-난 사람 깨-질 때 그 영- 해방될 수 있네.

5 이래-서 고난과- 환경 우리-에게- 임한-다네 그것-은 걸사람- 깨려 주께-서 허락한 걸세.

6 걸사-람 곧 우리- 옛 혼 파쇄-되고- 상처-받아 속사-람 곧 우리- 새 영 그 영-과 함께 해방돼.

7 주님- 우릴 깨뜨-리어 보존-치 않-게 하-소서 기꺼-이 받게 하-소서 모든- 손상과 파쇄를.

8 다시-는 원망 없-도록 주 파-쇄 귀-히 여-기고 그 어-떤 이익보-다도 중하-게 보게 하소서.

**악보 / 음악 (한 545 / 영 749)**

<http://khymnal.org>